

담양군, 농촌개발 통한 정주환경 대전환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 체결 369억 확보 2029년까지 본격 추진 6개 지구 거점 정주여건 개선 기대 보육·교육·문화·체육·보건·교통 등

전라남도 담양군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며 향후 5년간 총 369억원 규모의 농촌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농촌개발을 통한 6개 지구 거점 중심 정주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18일 담양군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 아모리스 역사에서 열린 농촌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을 맺었다.

이날 행사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비롯해 전국 21개 협약 지자체장과 관계자 200여 명이 함께했다.

협약에 따라 담양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전문가 컨설팅 및 계획 보완 절차를 거쳐 2029년까지 국비 185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69억원을 투자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단일생활권 계획에 따라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1단계(무정면, 금성면, 월산면, 수북면), 2단계(봉

산면, 대전면),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반룡리)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농촌개발사업은 각 지역의 보육·교육·문화·체육·보건·교통 등 다양한 생활서비스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생활권별 맞춤형 인프라 개선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담양군은 먼저 단기적으로(2025~2029년) 시급한 거점별 생활서비스자족률을 높이고 생활서비스 간 연계구조를 형성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한다.

이어 중기(2030~2034년)에는 기능거점별 특화 전략을 바탕으로 정주환경을 고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다움 회복을 통해 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2035~2045년)는 담양읍을 중심으로 4개 권역 간 기능을 분화·연계해 거대 복합화 거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담양군 전역의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을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총 369억원 규모의 투자는 개별 면 단위 사업을 넘어 담양군 전체 정주기반을



담양군이 지난 1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 협약을 체결했다.

담양군 제공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광역교통망, 생활문화시설, 교육·복지 인프라와 연계된 거점 중심 개발은 향후 담양형 농촌정책의 대표 모델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이번 협약은 단순한 기반 정비를 넘어, 담양군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주민 주도의 정주환경을 구축하는 중요한 시작이다"며 "거점지역의 체계적 개발과 공동체 활성화를 통

해 담빛에서 누리는 행복한 '담로장생'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촌협약'은 중앙정부(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정부(기초지자체)가 협력해 지속가능한 농촌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20년부터 도입됐다.

자치단체와 주민이 함께 수립한 농촌공간전략계획을 바탕으로 단일생활권 중심의 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이에 따라 국비를 포함한 공동 투자가 이뤄진다.

담양=신재현 기자

디지털 소상공인 1만명 양성 곡성군, 디지털 기기 구입비 지원

전라남도 곡성군이 지역 소상공인의 주문·결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기기 구입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외식산업을 중심으로 비대면 주문·결제 등 디지털 전환이 가속됨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스마트 기기 보급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18일 곡성군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곡성군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연 매출 1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다.

각 사업장에서 사용할 스마트오더, 웨이팅보드,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스마트기기 도입 비용에 대해 공급가의 80%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디지털 대전환이 외식산업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다. 지역 소상공인의 스마트 기기 도입을 지원해 산업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곡성=김대영 기자

제18기 농업인 대학 교육생 모집 담양군, 21일까지 과정당 20~30명

전라남도 담양군은 오는 21일까지 '2025년 제18기 농업인대학'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스마트딸기 △농촌 창업 △청년농업인 과정 등 총 3개 과정으로 구성됐으며 과정별로 주 1회씩 총 17회, 총 72시간의 교육이 진행된다.

스마트딸기 과정은 ICT 기반 스마트팜을 활용한 고품질 딸기 생산 기술을, 농촌 창업 과정은 농촌 창업 기초 및 유통·마케팅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청년농업인 과정은 농업 기초이론과 정책 이해 등 영농기반 형성을 위한 교육으로 운영된다.

신청 자격은 해당 분야에 관심 있는 담양군 거주 농업인이다. 이 중 청년농업인반은 만 49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청년농업인 과정은 담양 외 지역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다.

모집인원은 과정당 20~30명이며 접수인원 초과 시 여성농업인과 40세 미만 농업인을 우선 선발한다.

자세한 교육 일정은 담양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주민등록등본과 경력제등등록증을 지참해 담양군농업기술센터 2층 인력육성팀에 방문하거나 거주지 읍·면 농업인상담소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교육 관련 문의는 담양군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061-380-0120)으로 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농업인대학에서는 스마트 토마토 과정을 운영해 ICT 기반 스마트 시설 및 환경제어 기술 교육을 진행했으며 총 39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화순군농업기술센터직원들이 관내 복숭아 농가를 찾아 봉지 씌우기 작업을 하고 있다.

화순군 제공

화순군, 복숭아 생산을 위한 적과·봉지 작업 당부

전라남도 화순군이 지난 16일 관내 복숭아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한 적과 작업과 봉지씌우기를 철저히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18일 화순군에 따르면 복숭아 적과 작업은 착과 과다로 인한 나무의 생리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과실 간 영양분 경쟁을 줄여 과실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핵심 과정이다.

적과는 만개 후 40일 전후인 5월 중하순경에 실시하며 총 수확량을 고려해 적

정 착과 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과 후에는 봉지씌우기를 통해 탄저병, 심식나방 등 병해충 피해와 일소(햇빛 데임)를 예방해야 하는데, 방제약제 살포 후 3~5일이 지나 충분히 건조된 맑은 날에 봉지를 씌우는 것이 효과적이다.

일부 농가에서 사용 중인 소형 봉지는 과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찢어지거나 터질 위험이 있어 8절지 이상 크기의 봉지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류창수 화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복숭아 품질은 적과와 봉지씌우기 실천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며 "농가에서는 과실 크기와 기상 여건을 고려해 시기를 잘 판단하고,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한 후 봉지를 씌워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화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복숭아 품질 향상을 위한 3개 사업(4.6ha)을 진행 중이며 '이상기상 대응 복숭아 품종 다양화 시범 사업' 신청을 오는 25일까지 받는다.

자세한 문의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061-379-5423)로 하면 된다.

화순=김선중 기자

함평군, 농산어촌 유학 가구 월 20만원 지원

소규모 학교 활성화 목표

전라남도 함평군이 농산어촌 유학생에게 유학경비를 지원하며 인구 유지와 소규모 학교 활성화에 나선다.

함평군은 2025학년도 2학기 전남농산어촌유학 선발 가구에 월 20만원의 유학경비가 지원된다고 18일 밝혔다. 유학경

비 지원은 관내 소규모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유학생 유치를 통해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학생 모집 및 선발은 전라남도교육청의 2025학년도 2학기 유학생 모집 일정에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함평군은 유학생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함평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

례'를 2023년 11월 제정한 데 이어 유학생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가족 체류형 임대주택 10동(읍다면 4동, 해보면 6동)을 조성 중이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농촌유학생 유치는 작은 학교 활성화는 물론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함평교육지원청과 협력해 더 많은 유학생들이 함평에 찾아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화순군, 지역사회건강조사 7월31일까지 진행 성인 900여명 대상

전라남도 화순군은 오는 7월31일까지 표본 가구로 선정된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성인 900여명을 대상으로 '2025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근거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필요한 건강 통계 산출과 지역 보건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초 자료 생산을 위해 질병관리청·화순군·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함께 수행하는 국가승인 통계조사다.

보건소 조사원이 조사 가구를 방문해 태블릿 PC 전자조사표를 이용한 1대1 면접 조사로 진행된다.

조사 항목은 △건강행태(흡연, 음주, 안전의식, 신체활동, 식생활 등) △만성질환 이환(고혈압, 당뇨 병 등) △사고 및 중독 △삶의 질 등 19개 영역 169개 문항이며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도 제공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팀(061-379-5324)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미라 보건소장은 "조사 자료는 지역 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의 기준이 될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는 만큼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는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조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중 기자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20년 연속 선정' 신뢰할 수 있는 신문 전남일보